

대 구 가 톨 릭 대 학 교
2019년도 제1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

일 시	2019. 1. 11.(금), 11:00 ~ 12:50		장 소	본관 412호 기획처장실	
위원수	8명	참석 위원수	6명	불참 위원수	2명
참 석	김대학(위원장), 박영봉, 강경래, 김민성, 신호재, 박상진, 박성수(간사), 박재완(간사)				
불 참	조극래, 조병진		참관 인사	예산평가팀 허성보 (예산담당)	
안 건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2019학년도 등록금 책정				
회 의 내 용	<p>위원장 : 성원 확인 후 개회를 선언함.</p> <p>위원장 : 우리 대학의 최근 5년간 등록금 현황, 입학금 감축 계획, 국내 소비자 물가 지수, 입학정원 감소 등 우리 대학의 현재 여건에 대해 설명함.</p> <p>김민성 위원 : 학생복지에 관한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은데 2018학년도 가결산 내역과 2019학년도 예산현황을 열람할 수 있는지 질의 함.</p> <p>위원장 : 2017학년도 결산서는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열람 가능하고 2018학년도 결산은 회계종료 시점인 2월 이후에 진행되기 때문에 지금 바로 알 수는 없음을 설명함.</p> <p>김민성 위원 : 심야에 가로등이 켜져 있지 않아 불편하고 통학버스가 자기 집 근처로 오지 않는다는 학생들의 민원을 가끔 접하고 있음.</p> <p>박영봉 위원 : 심야에 지역주민이나 아주 소수의 학생만을 위하여 가로등을 켜 놓는 등의 복지제공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으며 합리적이고 꼭 필요한 곳에 복지가 제공되어야 된다고 생각함</p> <p>강경래 위원 : 시외 통학버스 유료화 같은 경우 경일대, 대구대 등은 이미 유료화 하고 있었으며 상당 수의 타교 시외 학생들이 우리학교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부작용이 있음. 우리학교의 학생 중 많은 학생들이 통학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근거리 학생이며 장거리 시외 통학버스에 관하여는 생각해볼 여지가 있음.</p>				

회
의
내
용

김민성 위원 : 학생복지에 관하여는 형평성 있게 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
는 동의함. 학생들은 가시적이고 쉽게 체감할 수 있는 복지 혜택을 원
하고 있음. 축제 등에 학교의 예산지원이 더 있었으면 좋겠음.

강경래 위원 : 최근 주변 대학들의 축제 연예인 섭외 방식에 대해 설명하
고 유명가수 섭외에 등록금을 몇 천만원씩 낭비하는 것보다 그 비용으
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함.

김민성 위원 : 지금 같이 교양과목 축소 등의 학생혜택이 줄어드는 상황
이라면 차라리 등록금을 인하하여 등록금 인하라는 부분이 학생들에게는
또 다른 학생복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함.

박재완 간사 : 앞서서도 설명했다시피 우리나라의 모든 대학들이 최근 10여
년간 정부의 등록금 억제기조 때문에 등록금을 인상해야하는 상황 임에
도 불구하고 동결 또는 인하하여 왔으며 우리대학도 국책사업 참여, 국
가장학금2유형을 받기위하여 2019학년도에도 어쩔 수 없이 동결하고자
함을 설명함.

예산 담당자 : 최근의 예산집행 실적과 예산현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
여 홈페이지에 공개된 2017학년도 결산실적과 2018학년도 예산서를 출
력하여 회의자료로 제공함.

박영봉 위원 : 학부 정원 축소로 인한 등록금 수입감소, 최저임금 상승, 공
공요금 상승 등 등록금 인하요인보다는 등록금 상승요인이 절대적으로
많음에도 불구하고 등록금을 동결하고자 함을 설명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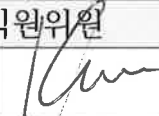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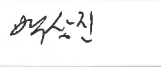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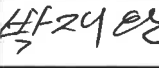
박상진 위원 : 교양과목이 줄어들면 그 만큼 인건비가 남는 것이 아닌가
질의함.

위원장 : 교양과목 축소의 배경과 진행과정을 설명함.

박영봉 위원 : 최근 변경된 시간강사법에 대해 설명하고 교양과목이 줄어
든다고 인건비가 줄어드는 것이 아님을 설명함.

위원장 : 최근 대학의 등록금 수입감소와 물가상승, 공공요금인상 등 지출
이 증가할 수 밖에 없는 배경과 대학운영의 어려움에 대해 다시 설명
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록금을 동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재차
설명함.

회의 내용	<p>위원장 : 학교의 재정 상황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구성원 서로가 고통을 분담하고 절약하여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등록금 동결에 동의하는지 질의 함.</p> <p>위원 전체 : 등록금 동결에 합의함.</p> <p>위원장 : 2019학년도 등록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동결하여 책정하는 것으로 결정하고, 폐회를 선언함.</p>
----------	---

교직원위원		교직원위원		교직원위원		교직원위원	
김대학		박영봉		조극래	불참	강경래	
학생위원		학생위원		학생위원		전문가위원	
김민성		신호재		박상진		조병진	불참
간사		간사					
박재완		박성수	